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2019 Summer vol.19
Medical Theme
소아성장





contents



Dongguk for you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Medical Theme ▶ 소아성장

03 Intro 세 살 건강 여든 간다

Health _ for you

- 04 Good Doctor 아이들과 만남은 행복이며 보람
- 08 Q & 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조숙증
- 10 Checkup 우리 아이 키 쑥쑥, UP!
- 14 See a Doctor 1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16 See a Doctor 2 아이 성장의 걸림돌, 비염 · 천식과 수면호흡장애
- 18 See a Doctor 3 오동통 토실토실 우리 아이, 소아비만 조심하세요
- 20 See a Doctor 4 척추가 기울어져 생기는 병, 척추측만증
- 22 Oriental Medicine 1 성장의 한의학적 치료
- 24 Oriental Medicine 2 삼복날의 삼복첩(三伏貼)으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세요

Life _ for you

26 Travel 해남 여행

DUMC _ for you

- 28 Introduction 의료진 소개
- 32 Zoom in Dongguk
- 36 Together

intro

세 살 건강 여든 간다

입이 짧아 엄마 애를 태우곤 했지요. 밥 한 숟가락에 배가 불러오고 국에 들어간 파는 왜 그리 커보이던지. 밥알 세며 깨작거리다가 등교시간에 늦을 뻔한 일이 다반사였지요. 친구들 반찬이 입맛에 안 맞아 점심시간이 곤혹스러웠고, 다른 집에 갈 땐 밥 먹을 걱정이 앞설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키도 작고 몸도 약골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가 어찌면 저를 그리 닮았는지. 편식이 심한데다 식사량이 적어 애간장을 태우네요. 그래도 어릴 적 먹는 걸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해 아이에겐 입맛을 강요하진 못하겠더라고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뜯 수 있도록 요리법을 궁리할 수밖에요. ‘뚝 닮은 자식 낳아 키워봐라’란 말이 이래서 생겨났나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건강도 그렇지요. 평생건강의 기반이 어릴 때 다져지니까요. 그러니 밥 안 먹는 아이 보는 마음이 조급해질 밖에도, 한창 클 때라면 더 그렇지요. 키는 청소년기까지 거의 다 큰답니다. 간혹 20대 중반까지 컸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무용담’ 수준의 얘기이고요. 소아기(3~12세) 때 성인키의 80%까지 큰다네요. 청소년기에 한 번 더 훌쩍 크기 위해서도 소아기 때 건강 챙기기가 아주 중요하지요.

키 성장엔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영양 섭취를 꼼꼼히 하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숙면을 충분히 취해주는 노력으로 키를 좀 더 키울 수 있지요. 이런 건강습관은 키 성장뿐 아니라 평생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도 필요하지요.

헌데 요즘 아이들에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영양은 균형이 깨지고 운동할 짬은 나지 않지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은 넘쳐나고요.

아이들 입맛을 뺏고 왜곡하는 환경을 없애주는 게 어른들의 일이겠지요. 제때 충분히 자라고 평생의 기초체력을 제대로 다지는 게 아이들에게 1순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만남은 행복이며 보람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동석 교수



지도교수들의 스마트한 모습에 반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다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이동석 교수는 의사로서
첫걸음을 떤 실습생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밤새 숨이 넘어갈 것 같던 위독한 아이가 아침에 생글생글
웃으며 반기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놀랍기만 했다.
그는 “아이들과 만남은 행복이며 학문적으로 보람있다”고 말하는
천상 소아 전문의다.

아이 성장을 돕는 소아청소년과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한두 번쯤 소아과로 달려가 진료를 받아보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누구나 반드시 거쳐 가는 소아청소년과는 의료 전문분야도 다양하다.
이동석 교수는 소아심장학, 소아내분비학을 전문으로 한다. 병원 초기, 소아 심장과 내분비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그는 자진해서 모교인 경북대를 오가며 공부했다.
이 교수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아이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이면에 성조숙증
이라는 복병이 숨어있다. 부모와 사회가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무척 커지고 있지만 대체로 이 대목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과체중이 늘어나면서 성조숙증을 보이는 아이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교수는 “8세 미만의 여자아이 가슴에 멍울이 생기거나 남자도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성조숙증의 원인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환경호르몬이나 비만 과체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환경호르몬 노출을 가급 줄이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조숙증을 방관하면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이 앞당겨질 수 있고, 에스트로겐에 일찍 노출돼 다양한 여성
질환의 발생 위험률도 높아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성인 예측 키도 작아지므로 부모의 각별한 관심
과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 한 번쯤 미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성조숙증의 진단은 해당
연령의 아이가 사춘기의 신체 변화를 보이는 경우 먼저 뼈나이를 측정해서 실제 나이와의 차이를 비교해본다.
여기서 1년 이상 벌어지면 다시 호르몬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혈액검사까지 완료 후 최종 확진한다.
특히 여자아이가 6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남자아이 역시 사춘기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복부 초음파, 뇌
MRI 등으로 다른 질환에 의한 2차 징후인지도 살핀다. 물론 이러한 검사 외에도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수는 “모든 환자가 치료대상은 아니며 주로 빠르게 진행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치료과정에서 성장
속도, 뼈나이의 진행 정도와 필요시 호르몬 수치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치료 전
쑥쑥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지만 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잘 유지된다면 걱정할 게 없다. 실제 성장판이 일찍 닫히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성조숙증으로 인한 최종키
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성조숙증은 일반적으로 여아의 경우 뼈나이 12세를 전후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이 시기는 비만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체중조절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은 병원에만 의존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아이의 먼 미래를 위해 가족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운동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고 덧붙인다.

기억은 대다수 보람으로 잊혀져

아이를 상대로 진료하기에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느냐고 묻자 이 교수는 대뜸 “없어요”라고 답한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한다면 마음에 걸리는 안타까웠던 환자가 한두 명 있었다는 것. 이 교수의 환자들은 대다수 회복되거나 치료 후 웃으며 퇴원하기 때문에 보람 있는 기억으로 잊혀진다.

그는 아이들 울음소리도 기분 나쁘거나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진료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으로 교감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아이도 부모도 어리고 젊어 함께 젊어진다는 게 그의 속내다. 사실 누가 봐도 이 교수는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인 그의 고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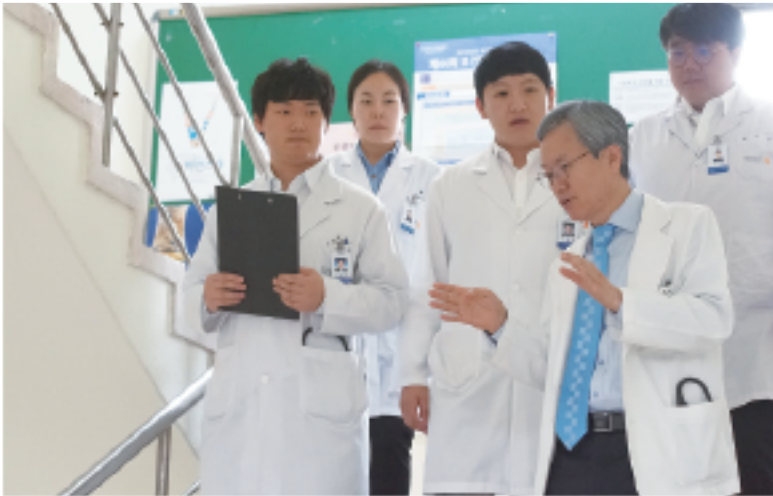
이 교수는 지난 3월 11일 학기가 이미 시작됐을 무렵,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부임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학교 일을 해와서 그런지 갑자기 맡았으나 부담은 적다.

학교생활 24년, 그는 임기 2년에 무언가를 이루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바로 다가올 202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의과대학으로 전환 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의학 교육과정을 빠르게 개발 완료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 출신 졸업생들이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는 이 교수는 “학교도 병원도 젊어지고 경쟁력을 갖춰가는데 지방이다 보니 젊은 의사를 불러오기가 쉽지 않다. 문화, 교육 등 주변환경과 급여 등 여건이 어렵게 만든다”고 하소연한다.

병원장 3년 6개월, 메르스·지진 겪으며 재도약 이끌어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병원도 준비 없이 맡았다. 하지만 의료원장, 법인 이사장, 대학 총장 등 모두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어려움을 공감, 협조를 구했고 직원들은 감축까지 감내



하며 7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그러나 내부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먼저 메르스가 불어닥쳤다. 인증평가를 앞두고 경기도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줄고, 3개월 동안 수익도 반 토막이 났다. 그러던 중 ‘격리 병상’ 전국 5곳 병원에 포함되면서 메르스 치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평가도 거치고 차츰 안정에 접어들던 2016년 9월 상상도 못한 지진이 발생했다. 수술실, 입원실 환자가 모두 퇴원 했고 ‘뚝’하고 끊겼다. 급한 외래환자만 찾았다. 하지만 건물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내진 보강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심장질환, 뇌혈관 분야 등 다수 진료과목은 탄탄한 의료진을 갖추었고, 지방에서는 드물게 혈관조형술 장비도 2대를 구축했다. 갈수록 외래환자도 늘고 이미지도 바뀌고 있다.

이 교수는 “3~4년 병원장을 지내면서 모든 일을 겪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감사할 따름이다”고 회고했다. 그의 솔직 하면서도 정직한 인품이 진심으로 통했던 것 같다.

퇴직 후 나의 버킷 리스트는

학교와 병원, 환자들만 바라보며 달려온 이 교수는 퇴직 후 내 삶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못했다.

당분간은 병원과 학교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도시 인근에 전원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 고교 때 수학, 과학을 좋아했던 전형적인 이과생인 그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에 매진할 생각이다.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다. 의과대학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여, 지성과 더불어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의사로 활동하기 바라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받고 교직원 모두의 가슴속에 자랑스러운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일을 마치고 나면 그때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질문을 던지자 “최근 정년 퇴임한 은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로 장기간 의료봉사를 간 감동 스토리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편한 삶을 마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선택한 그 은사 부부의 결정이 현재까지 미정으로 남아 있는 이 교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이 동 석 교수

경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주임교수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소아청소년학과 과장
前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병원장
現 의과대학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전문진료분야
소아심장학(선천성 심질환, 부정맥, 가와사키병),
내분비학(저신장, 성조숙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조숙증

성장기 아이의 인생에 있어 사춘기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연스러운 사춘기의 변화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은 아이의 사춘기가 과도하게 일찍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Q

성조숙증 치료는
꼭 필요한가요?

A

성조숙증 치료의 목적은 정상적인 사춘기 시작 때까지 이차성징의 진행을 멈추는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빠른 초경에 따른 아이의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빠른 사춘기로 인한 미래의 건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성조숙증으로 인한 성인키의 감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성조숙증 치료 후
불임이 올 수 있나요?

A

불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사춘기 지연제의 투여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로 쓰이는 사춘기 지연제의 작용 시간은 평균 4주입니다. 4주가 지나면 약 효능이 떨어지면서 사춘기 억제 작용이 점차 줄어듭니다.
따라서 성조숙증 치료시 4주 간격으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종료되면 다시 수개월에 걸쳐 사춘기가 회복되며 1~2년 사이에 통상 생리를 하게 됩니다. 만 15세가 지나도 초경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진료를 합니다.

Q

성조숙증 치료 약제는
항암제인가요?

A

성조숙증에 쓰이는 일명 ‘사춘기 지연제’는 일종의 호르몬 유사체로 뇌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성호르몬의 분비를 낮추어 주므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쓰입니다.
따라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세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항암제와는 다릅니다. 즉 성조숙증에 항암제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암치료에 사춘기 지연제가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

우유나 계란을 많이 먹으면
초경을 일찍 하나요?

A

우유나 계란에 성장촉진제가 많이 들어있어 다량 섭취 시 아이들이 초경이 빠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성장촉진제를 쓴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에는 생물학적 활성이 없어 호르몬으로써 작용하지 못하며 장에서 소화되므로 초경 시작과 연관은 없습니다.

Q

키를 크게 하기 위해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적절한 방법이 맞나요?

A

사춘기 지연제는 유전적인 목표 키 이상으로 키워주지 않습니다.
성조숙증의 진행으로 사춘기가 빨라져서 유전적 목표보다 훨씬 작은 성인키가 예상될 때 예측 키만큼 자라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즉 성조숙증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아이의 사춘기를 늦춘다고 해서 성인키가 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Q

성조숙증일 때 주사 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가요?

A

신체적인 변화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이 있더라도 같은 연령의 친구에 비해 외양은 조숙해 보이나 행동이나 사고가 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초기에는 심리적인 위축이 나타나기 쉽고 나중엔 이성 관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부모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년 이내 성적인 성숙도에서 또래 아이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지현 교수의 성장클리닉

우리 아이 키 쑥쑥 UP!

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터넷 검색 창에 키를 검색해 보면
키 잘 크는 법을 알려달라는
문의 글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키가 평균 키인 것일까?

대한소아과학회가 2017년 발표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에 따르면 18세 남자는 174.5cm, 여자는 161.1cm였다.
1998년 발표된 남자의 표준 키는 172.5cm, 여자는 160.5cm
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젊은이의 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사람의 최종 키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 즉 부모의 키이다.
대다수의 성장 전문의들은 유전적인 요소가 키의 70~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출생 시 체중도 키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숙아나 자궁 내
발육 지연으로 작게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10~20%는 포레
의 키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심한 스트레스도 성장
에 방해가 된다. 평소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라도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여 양육시설에 수용된 경우, 하루 세끼를 잘
먹여도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가정 불화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 부족도 성장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작은 키의 기준은 얼마일까? 의학적으로 백분위로 3퍼센트 미만의 키를 작은 키로 정의한다.
남자의 경우 164.4cm, 여자의 경우 152.2cm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키가 잘 크지 않는 것일까?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저신장이다.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작고, 만 4세 이후에 1년마다 4~6cm씩
꾸준히 자라고는 있지만 포레 아이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 뼈 나이라고 부르는 골연령도 어리지 않고
사춘기도 대개 정상적인 나이에 시작되기 때문에 최종 키는 평균 키에 비해 작지만 부모 키와 비교하면
정상에 해당한다. 두 번째 원인은 체질성 성장 지연이다. 체질적으로 사춘기가 늦게 시작되어 키도 늦게까지
크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지만 뼈 나이를 측정해 보면 대개 2~3년 정도
어리다. 연간 성장 속도는 정상이면서 고등학교 무렵까지 계속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는 정상
범위에 도달한다.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가 어릴 때는 작았지만 사춘기가 늦게 시작되어 늦은 나이까지
자랐던 경력이 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신 질환 때문에 키가 안 자라는 경우에도 뼈
나이는 어리게 나타난다. 따라서 키도 작고 뼈 나이도 어린 아이가 성장 속도마저 낮다면 키가 자라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1년에 4cm를 자라지 못한다면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여자 아이면서 키가 작고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터너 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이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거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의 키가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성장 전문의를
만나 보는 것이 좋다. 매우 드물지만 두개인두종과 같은 뇌종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초래된 경우 첫 증상이 성장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내분비 호르몬 이상에서도 키 자라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질병의 가장 초기 증상일 수 있다. 내분비 호르몬 이상에 의한 성장 부진은 흔히 비만을
동반한다. 아이가 키는 잘 자라지 않고 체중만 빠르게 늘거나, 피로를 많이 느끼고 체력이 떨어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면 자라는 속도는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손실된 키를 100%
따라잡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내분비 질환 외에도 결핵이나 만성신부전,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아이의 키가 포레들에 비해 10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성장 전문의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의
키는 작지 않지만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 최종 키가 작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지금은 정상 키에 속하더라도 지난 1년 간 4cm를 채 자라지 못한 경우
1~2년 내에 작은 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뿐 아니라, 키가 자라지 않는 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

아이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연간 성장 속도이다. 지금의 키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키를 조금이라도 따라잡고 있는 중인지, 표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병원을 방문할 때 집에서 정기적으로 잰 키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매년 실시한 체격 검사 자료가
있다면 성장 상태를 평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 동안의 정확한 성장 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을 3~6개월 간격으로 방문하여 키를 여러 번 측정하면 정확한 성장 속도를 알 수 있다. 사춘기 발달
정도는 아이의 성장 잠재력이나 예상 키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이에게 사춘기 징후가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한다.

병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성장판 사진 촬영이다. 실제 성장판은 X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뼈들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성장판은 검은 선으로 보이게 된다. 성장판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X선 상에서 검게 보이던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주위의 뼈들과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뼈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는다. 성장이 멈추는 나이는 남자의 경우 뼈 나이 17세, 여자는 15세이다. 실제 키 성장은 일반적인 달력상 나이보다는 뼈 나이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뼈 나이와 만 나이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뼈 나이가 빠른 경우 성장이 더 일찍 멈추기도 하는 것이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인 아이들은 성장호르몬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표준 키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진단을 받아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만 4세까지 따라 잡기 성장이 되지 않은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터너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 후 남자는 160cm, 여자는 150cm가 될 때까지 성장호르몬 치료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성장호르몬은 생리적인 분비와 비슷하도록 잠자기 전 또는 밤에 피하 주사로 투여하며 최소 6개월간 투여하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하게 된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치료를 시작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기간이 길수록, 키가 작은 정도가 심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주사 부위 통증, 두통, 혈당 증가나 갑상선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대개 일시적이며, 주사를 중단하면 회복된다.

성장호르몬 치료 외에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는 성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단백질과 갈슘, 무기질 등이 풍부한 식사를 하여 키도 크게 하고 충분한 골밀도를 얻도록 해야 한다. 모든 유산소 운동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성장에 도움을 준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지속하면서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여야 효과가 있다. 수면 역시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오래 자도 충분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즉 일찍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숙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큰 도움이 될 듯 하지만 이런 기본을 잘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심지어 성장호르몬 치료 중에도 기본을 잘 지키는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큰 키를 가지길 바란다. 하지만 키의 크고 작음은 신체적인 특성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 지 현 교수

“어린이 저신장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질병 경과에 따라 성장 장애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숙련된 전문가의 전문적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저신장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신장증은 같은 성, 같은 나이의 표준 키와 비교했을 때 키가 3 백분위수 이하, 즉 100명 중 앞에서 세번째인 경우를 말합니다.

저신장증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신장증의 원인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뉩니다. 1차성은 성장판 결함으로 인해, 2차성은 만성질환 또는 내분비 질환에 의해 생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특발성 저신장증이라고 분류합니다. 1차성 성장장애에는 골연골이형성증, 염색체 이상, 자궁내성장지연과 기타 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2차성 성장장애에는 영양실조, 염증성 질환같은 만성 질환과 함께 내분비 질환이 포함됩니다. 내분비 질환에는 갑상선저하증, 쿠싱증후군, 구루병, 가성부갑상선저하증,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습니다. 특발성 저신장증에는 정상변이로 간주되는 가족성 저신장증과 체질성 성장지연이 포함되나, 앞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키가 작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최종 성인키가 남자는 160cm 미만, 여자는 150cm 미만으로 작게 됩니다.

성장호르몬은 키 성장뿐 만이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고 지질 대사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는 치료하지 않으면 대사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저신장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원인과 상관없이 성장호르몬 주사가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대개 1차성 성장장애는 성장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호르몬 효과가 작습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부족한 호르몬의 채워 주는 것이라서 충분히 치료한다면 표준 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시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기간이 길수록, 키가 작은 정도가 심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작아도 늦게 자라겠지’ 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가끔 부모의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도 작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늦게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면 키가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일찍 치료받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지요. 키가 또래보다 매우 작거나, 연간 성장속도가 4cm 이하,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자라지 않는 경우, 사춘기에 접어 들었는데도 급성장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진료분야 » 성장클리닉, 소아내분비, 갑상선질환, 소아당뇨병, 성장지연, 성조숙증

이광현 교수의 진료실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나 체중이 현저히 작다면 부모는 속상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혹은 너무 예민하지 않은지? 살펴보게 되고 병원 성장클리닉을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 혹은 스트레스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압박감으로 보면 됩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일이 주어지거나,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차가 심합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어떤 이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두려움이 많은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울면서 절대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도, 이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나 학습 결과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 반면, 시험 그 자체와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평소의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실망하며 더 부담감을 가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보이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예민합니다. 잘 울고 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잘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라며 부모의 지지와 함께 문제해결 방식을 보고 배우며 자신감이 커지고 대범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학습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와 많은 대화와 교감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다른 요인은 환경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의 환경적 요인은 아동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 간에 다툼이나 이혼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지나친 소음, 외로움, 지지체계가 없는 것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는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거쳐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테로이드를 분비하고, 각성이나 흥분했을 때 증가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위장관 운동은 감소하고 염증반응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계, 소화기, 호흡기,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미쳐 당뇨, 갑상선질환, 위궤양,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아들은 잘 놀라고 많이 보채고, 특히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게서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심하면 사회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회공포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생의 1/3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특히 신생아들은 배가 고프거나 똥오줌을 싸서 울고 보채서 이런 것을 치워주고 먹여주면 잠을 잡니다. 하루의 거의 2/3를 잠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첫 2년 동안 인간은 가장 활발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뇌 발달은 이 기간 동안 큰 발달을 합니다. 수면은 의미 없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생존과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수면의 기능으로는 낮 동안 손상된 신체와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서 뇌의 기능을 회복하고, 낮 동안 학습한 내용을 기억단백질을 만들어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생존과 보존 기능을 조절하고,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들은 하루를 주기로 변화합니다. 낮 동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테로이드가 증가 되고, 밤이 되면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인간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장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거의 같은 변화주기로 분비가 증감됩니다. 즉, 밤 시간에 성장호르몬이 증가하여 신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들이 여러 가지 수면장애나 스트레스로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장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도 아동에게 지속되는 수면장애가 생기거나, 낮가림이 심하고, 깜짝깜짝 자주 놀라거나, 잘 하던 기능을 갑자기 하지 못하는 등의 퇴행된 행동을 보인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불안장애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광현** 교수
기분장애(우울증, 조울병, 불안장애), 정신분열병, 노인정신의학, 소아청소년정신의학

강은경 교수의 진료실

아이 성장의 걸림돌 비염 · 천식과 수면호흡장애

‘우리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아이가 항상 코가 막혀요’라고 호소하는
부모님을 종종 진료실에서 만납니다.
또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골면서 옆치락 뒤치락
구르면서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는 자는 게 원래 저래’라고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단순한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그리고 코골이, 코막힘을 동반하면서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는 수면무호흡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수면에 방해를 주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잘 찾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염

알레르기비염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 소아에게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기에는 감기가 자주 걸리기 때문에 감기와 비염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알레르기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가려움, 코막힘 증상과 흡입항원에 대한 검사가 양성일 때 진단이 됩니다. 부모가 알레르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전적 소인, 면역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집먼지진드기나 꽃가루, 대기 오염, 실내곰팡이 등)에 의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와 경구약(항히스타민제, 항류코트리엔제)을 주로 치료에 사용합니다. 봄철의 꽃가루알레르기처럼 특정 계절에만 국한되는지,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지,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기간은 달라집니다. 알레르기비염에서 아데노이드비대가 동반될 수 있는데, 이는 수면호흡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막힘을 단순히 비염의 증상으로 간주하여 수면호흡장애 증상을 놓쳐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코막힘이 심하거나 편도가 커져있는 비염 환자에게는 코골이와 수면증상, 주간 졸림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X-ray 촬영과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천식

천식도 알레르기비염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아에게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유병률이 증가추세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레르기비염에서의 여러 위험인자에다 아토피피부염, 2세 전 모세기관지염의 병력, 간접흡연 노출 등 여러 인자가 천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효과나 환경위생이 좋아지면서 세균감염이 감소하여 면역학적인 균형이 알레르기면역반응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 기침과 쌉쌉거림(천명), 호흡곤란, 기슴답답



함이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이 천식의 주된 악화요인입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다가 감기만 걸리면 급성 천식증상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원인 항원에 노출되거나 부비동염, 비만, 심리적인 요인, 최근엔 미세먼지의 증가에 의해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천명이 반복되는 경우 천식의 가능성이 크므로 천식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식이 있는 소아의 60~80%에서 알레르기비염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면호흡장애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천식의 심한 단계를 고려하여 흡입스테로이드, 항류코트리엔제 등으로 하며, 천식 조절 상태에 따라 약제를 조정합니다.

수면호흡장애

수면 시 습관적으로 코골이가 있을 때는 수면호흡장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면호흡장애의 형태 중 제일 심한 형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입니다. 소아에서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런 편도 조직들이 심한 단계로 커져있고 수면에 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검사를 하지 않고 편도/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는 수면다원검사를

하여 무호흡/저호흡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2~3개월 뒤 수면다원검사를 추적하여 여전히 지수가 높을 경우에는 양압기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보험기준에 맞으면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밤동안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있을 경우, 낮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ADHD)장애로 진단이 될 수도 있으며, 인지 능력이 떨어져 학습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림 1]은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10세 소아에서 심한 아데노이드비대를 보여주는데, 수면다원검사서 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그림 2]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적출술을 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거나 큰 아이의 경우 아침에 두통을 자주 호소하거나, 낮 동안 학교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성격이 까칠해지거나 졸려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자주 깨거나 푹바로 누워 자지 못한다거나 입으로 숨을 쉬며 땀을 많이 흘린다면 수면질환을 보는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잘 자는 천사와 같은 아이의 모습을 매일 마주하고 싶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림 1]



[그림 2]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은경 교수
전문진료분야 » 알레르기, 호흡기, 중환자관리,
천식 · 알레르기클리닉, 수면질환

조승만 교수의 진료실

오동통 토실토실 우리 아이 소아비만 조심하세요

고열량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고
운동량은 점차 줄어들어
소아비만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생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아비만으로 인해 초래되는 질환과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비만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들에서 건강, 사회, 경제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비만은 왜 생길까요?
본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연소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섭취될 때 비만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소아비만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소아비만으로 인하여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대사성 질환(예를 들면 인슐린 저항성, 포도당불내성, 고혈압 등)과 비대사성 질환 (예를 들면 골관절통증, 평발, 피부이상, 지방간, 야간 무호흡, 섭식장애,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동기의 비만은 어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 청소년들의 약 7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아비만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성인 비만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아 비만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이상의 칼로리 섭취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중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과체중이나 비만상태가 지속됩니다.

음식의 섬유질 함량 또한 중요합니다.
섬유질량이 적은 경우 식사의 양이 줄고 영양소의 흡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칼로리는 같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에 비해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 신체 활동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운동은 체중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날씬한 질량(근육 조직)과 지방질(적극 조직) 사이의 비율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비만의 경향을 물려받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운동과 영양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부모가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올바른 영양 습관을 배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소아비만이 부모의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기진단이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유전자 검사를 근거로 아직 비만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해보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는 심각하게 비만인 아이들 300명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분적인 DNA 손실과 심각한 비만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누락된 유전자는 배고픔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16번 염색체에 속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일반화 하기에는 이르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비만을 적절히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 조절 및 운동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단조절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진 신호등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요법은 초록군(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식품), 노랑군(단백질을 포함한 중간 정도의 열량의 식품) 그리고 빨강군(열량이 매우 높은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 함유된 식품)으로 음식을 구분해서 빨강군은 줄이고 노랑군 및 초록군의 비율을 높이면서 전체 칼로리를 맞추어 주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빠르게 걷거나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소아 비만 환자의 경우 간수치 상승과 함께 간에 기름이 많이 끼어있는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매우 증가하고 있으므로 BMI 가 85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검사를 통해 대사질환 여부 및 지방간염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승 만 교수
전문진료분야 » 소아 소화기 및 영양, 신생아학

남기연 교수의 진료실

척추가 기울어져 생기는 병 척추측만증

청소년기 성장에 매우 중요한 척추,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폐와 심장을 압박할 수 있는
척추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기울어지거나 회전 변형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선 자세에서 방사선촬영을 했을 때 측면 만곡이 10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또한 그만큼 키성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흉곽 내 폐와 심장 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선천성, 특발성, 신경근성으로 나뉩니다. 이중 뚜렷한 이유 없이 척추가 기울어지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조적 측만증의 80%를 차지합니다. 발생 시기에 따라 유아기, 연소기, 청소년기로 구분하는데,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아보다 측만 진행의 가능성이 높고, 초경 시기와 성장 가능성 및 초기의 척추 측만 정도에 따라 진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을수록, 초기 측만각도가 심할수록 측만증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아이의 척추측만증을 부모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의 옷과 신발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옷소매가 늘어나 한쪽이 더 나온다거나, 한쪽 신발이 더 빨리 닳을 경우, 양쪽 어깨나 골반 높이가 다른 경우, 유방의 비대칭 등이 있을 경우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선 자세에서 몸통을 앞으로 숙이도록 해 등의 돌출이 비대칭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령, 심한 통증, 마비, 감각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중증의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 종양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측만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방사선 사진을 통해 측만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도가 넘으면 진행을 막기 위한 척추 보조기가 필수입니다. 척추보조기는 성장시기에만 착용하게 되는데, 착용시간에 따라 측만 진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6시간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척추 측만증에 사용되는 딱딱한 보조기가 장시간 착용하기에 많이 불편하고, 외모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옷을 입어도 드러나는 문제점 때문에 착용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보조기에 센서를 부착해 보조기 착용 정도를 측정한 결과, 실제로 아이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착용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고 착용률이 안 좋은 아이가 척추 측만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조기 착용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비구조성 척추측만과 불량한 자세에서 오는 척추 틀어짐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 적절한 재활운동요법과 자세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주변 근육의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 꾸준히 시행하면, 증상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벽을 이용해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기초 바른 자세 운동법이 있습니다. 자세가 나쁘고 등이 굽은 아이들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잘못된 자세를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벽에 기대어 서서 머리 뒤통수까지 벽에 밀착시킵니다. 그 다음 배꼽을 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침, 저녁 하루 2번, 3분씩 벽에 기대어 서 있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아이에게 권하는 운동은 아이가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한쪽만 회전해야 하거나, 한쪽 팔만 많이 쓰는 볼 운동 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기 종목 한 가지와 함께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쪽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수영, 달리기 등의 종목을 함께 하는 것은 권장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몸의 성장 정도에 따라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척추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관리하면 심한 기형으로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아이의 척추에 관심을 기울이는게 중요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남기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 자세교정, 통증클리닉(팔통증, 손/발저림, 발통증, 평발), 스포츠클리닉, 림프부종

김장현 교수의 한방 건강

성장의 한의학적 치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김 장 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비염, 천식, 아토피),
소화기 질환(식욕부진, 복통),
성장 부진, 야뇨증, 허약아



일반적으로 성장장애라 하면 주로 키에 있어서 성장장애를 말하는데, 의학적인 저신장이란 키가 또래의 평균 신장보다 3백분위 미만인 경우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모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서구적인 미의 기준이 각광받으며, 저신장이 아닌 정상 아이들도 작은 키로 인한 차별을 걱정하며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적 저신장증은 골격계 이상, 염색체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전신 질환, 영양결핍, 저신장을 초래하는 내분비 질환(호르몬 불균형) 등의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70~80% 원인 질환이 없는 정상 변이 저신장증으로, 부모의 키가 작은 유전적 저신장과 늦게까지 자라는 체질성 성장지연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장애의 범주가 아닌 아이들이 성장클리닉에 내원한 경우, 거의 대다수가 정상 성장의 패턴을 따라가는 케이스가 많아 과잉 검사는 가급적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키, 아이의 현재 신장과 체중 및 성장 패턴, 성 성숙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상 검사를 통한 골연령을 확인하여 성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근골격계를 주관하는 신기(腎氣)가 충만하고 영양 흡수를 관장하는 비기(脾氣)가 건강하여야 성장이 원활하다고 바라봅니다. 잦은 복통, 식욕부진, 변비 및 설사 등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저체중의 아이들은 비위(脾胃)를 보강하는 한약을 투여하고, 소화 기능은 건강하나 부모 모두 키가 작은 가족성 저신장의 경우 선천지기(先天之氣)를 건강하게 하는 한약을, 면역력이 툭 떨어져있어 호흡기 질환에 자주 이환되는 아이들의 경우 폐(肺)기능을 돕는 약물을 기본으로 하여 처방합니다. 또한 배수혈을 자극하는 소아 주나나 침 치료를 통해 아이의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주어 성장발육을 촉진시켜 줍니다.

본원에서는 아이 개인 특성에 맞춘 처방에 근골격계를 강화하는 약재들을 가미하여 성장 촉진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장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승부, 위중, 곤륜, 족삼리 등과 같은 경혈에 침 치료를 시행하여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성장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성장판에 집중적인 자극을 줍니다. 또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수면 확보를 위하여 수면 위생교육을 하고, 신체 활동량 확보를 위한 꾸준한 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시기는 크게 두 번의 골든타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후 30개월까지인 1차 성장급진기에는 아이가 일생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일 년에 10~25cm까지 자랍니다. 그 후 아이의 성장에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 찾아오는데, 2차 성장급진기인 사춘기입니다. 일 년에 8~12cm까지 성장할 정도로 성장 폭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최종키를 결정하는 마지막 성장 가속기입니다. 따라서 클 수 있을 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이 시기는 아이들이 학업양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물리게 되므로 각종 성장 저해 요소들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수면시간 부족, 패스트푸드와 같은 저영양 고열량 식이섭취, 불규칙적인 식이습관, 신체 활동량의 저하들이 그 예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운동을 병행하며, 면역력 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031·710·3724

민상연 교수의 한방 건강

삼복날의 삼복첩(三伏貼)으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세요



동병하치 (冬病夏治)

감기, 기침,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 겨울철 병,
여름에 지키는 예방법!

삼복첩 (三伏貼)

동병하치의 대표적 방법,
이제 한방소아청소년과
삼복첩으로 예방하세요!

시술시기

초복 이후 10일내 1회

중복 이후 10일내 1회

말복 이후 10일내 1회

총 3회 시술

예방차원

잦은 감기

폐렴

중이염

기타 호흡기 질환

증상완화 및 치료

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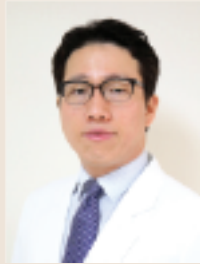
알레르기성 비염

중이염

기타 호흡기 질환

시술방법

폐와 관련된 혈자리에
한약재를 붙여 호흡기를
튼튼하게 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민 상 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허약아, 성장장애, 성조숙, 학습장애,
소아호흡기질환(감기, 천식, 비염),
소아소화기질환(복통, 변비, 설사),
소아 알레르기, 두통, 안면마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병이 생겼을 때 치료받는 것 보다 병을 예방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힘든 것도 당연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가을이 되면 우리아이가 건강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아이에게 좋은 보약을 먹이려고 한방소아청소년과를 찾는 부모님들이 늘곤 합니다. 아이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예방주사를 맞듯 한의학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전해져 왔는데 이것이 삼복첩입니다.

여름에 감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선 여름엔 양기가 강하고 기의 흐름이 활발해 양기부족이 원인이 되는 감기나 기침 등의 질환이 잘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환들은 잠시 잠복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겨울이 되어 양기가 다시 부족해지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에 자연과 인체에 넘치는 양기를 잘 모으고 양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겨울에 감기, 기침, 천식,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병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병하치(冬病夏治: 겨울철 병을 여름철에 치료함)의 원리입니다.

한의학 최고의 고전인 내경(內經)에 '성인(聖人)이 말하기를 봄 · 여름에는 인체의 양기(陽氣)를 기르고, 가을 · 겨울에는 인체의 음기(陰氣)를 길러야 건강해 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름 중 삼복(초복, 중복, 말복)의 기간은 일년 중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하고, 인체의 양기 또한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 오장육부 중 면역기능에 관련된 비(脾), 폐(肺), 신(腎)의 기능을 북돋아 몸에 양기가 쌓이도록 하면 가을과 겨울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동병하치의 대표적 방법이 바로 '삼복첩(三伏貼)'입니다.

삼복첩은 중국 명나라때 시작된 한방요법으로, 일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삼복(초복, 중복, 말복)기간 중에 각각 오장육부의 기운을 강화하는 경혈자리에 치료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붙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및 대만 등에서 동병하치의 대표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삼복기간에 수천, 수만의 환자들이 한방병원을 찾아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치료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복첩으로 천식의 증상이 60%가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 본원에서 한 연구에서는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편도선염, 중이염의 발생빈도나 기간이 치료 후에 좋아졌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삼복첩은 시기만 잘 지키면 치료받기도 용이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시술이 편해서 아이들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면역기능 떨어져 추위를 많이 타고, 감기, 만성적인 기침, 비염, 축농증, 천식 등이 자주 발생하는 아이라면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술방법은 한약을 가루내어 소아와 성인의 체형에 맞는 부드러운 환약으로 만들어 환자의 등에 있는 6개의 주요 경혈자리에 붙이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 어린이는 4시간, 성인은 6시간 정도 붙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도 등에 삼복첩을 등에 붙이므로 손이 닿지 않아 잘 붙이고 있고, 가벼운 열감의 치료작용 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므로 남녀노소에 모두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간혹 부침부위나 환약을 붙이기 위한 반창고에 민감하여 붉게 되거나 가려운 경우가 있으나 주의사항에 따르고 적절한 처치를 하면 됩니다.

겨울을 나는 수많은 동물들은 여름철 부지런히 창고에 곡식을 채워 겨울을 풍요롭게 보냅니다. 한여름의 수고가 길고 긴 겨울을 걱정없이 나게 하는 것이죠. 올 여름 겨우살이 동물의 교훈처럼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다면 올 겨울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19년 기준 삼복첩 시술 일시 및 방법 ▶ 7월 12일(초복), 7월 22일(중복), 8월 11일(말복) 이후 각각 10일내에 1회씩 총 3회 시술

문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031·961·9070

해남 여행

해남은 우리나라의 땅끝에 있는 도시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땅끝마을을 궁금해했다. 군대를 다녀온 직후 혼자서 여행을 떠났을 때, 첫 목적지로 해남의 땅끝마을을 잡았다.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던 땅끝마을에 도착했을 때 특별하다고 말할 것은 없었지만, 소박한 풍경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 시절 혼자 했던 나의 여행이 스스로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여행작가로 사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 해남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첫 시작점이다. 땅끝마을은 해남을 대표하는 여행지이지만,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면 엄청 난 오산! 여행을 놓고 해남을 본다면 볼거리가 생각 외로 많다. 지금부터 해남에서 놓칠 수 없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해남공룡박물관



해남 황산면 우항리에는 공룡이 살고 있다.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커다란 공룡 조형물이 관람객을 반긴다. 공룡 소리까지 재현해 놓아 실감이 난다. 매표소를 지나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공룡이 노닐고 있으니 마치 주라기 시대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우항리에서 신성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해안에 걸쳐 무려 514여 점에 달하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다. 공룡과 더불어 익룡의 발자국 역시 규모가 커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다.

박물관에는 백악기 시대 우항리 지역의 지층과 퇴적 형성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물을 시작으로 공룡실, 중생대재현실, 해양 파충류실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룡실에 전시된 알로사우르스의 진품 화석은 공룡박물관의 백미이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화석지 탐방로로 나오면 공룡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 있다. 초대형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사암층을 지나 조각류 전시관과 조류, 익룡관 안에 전시된 발자국 화석을 관람할 수 있다.

땅끝마을



해남 여행의 성지는 결국엔 땅끝마을이다.

우리나라의 땅끝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크다.

12년 전 유럽 여행을 했을 때, 포르투갈에서 유럽 대륙의 땅끝 호카곳(Cabo da Roca)에 갔던 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앞에서 보았던 광활한 바다에 비하면 땅끝마을의 풍경은 소박하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땅끝은 아늑하고 포근하다.

땅끝마을 주차장에서 땅끝탑이 있는 곳까지는 왕복으로 30~40분 걸어가야 한다. 데크로 놓인 절벽 길을 따라가면 바다를 마주 보고 높게 솟아 있는 탑이 이곳이 땅끝임을 말해준다.

땅끝 마을과 주변 해안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싶다면 모노레일을 타고 땅끝 전망대로 가보자. 땅끝 탑에서 걸어가면 많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모노레일을 타면 땅끝 전망대가 있는 갈두산까지 쉽게 갈 수 있다.

황산연호보리축제



4월 푸릇푸릇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이 오면 청보리가 싱그럽게 피어오른다. 해남 근방에서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유명하지만, 해남 황산면 연호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연호보리 축제를 기획했다. 올해가 축제 첫 해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만평에 달하는 연호마을의 난간이 농원으로 펼쳐진 보리밭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면서 봄기운을 만끽하기에 좋다.

연호보리축제는 '마을에서 놀자! 보리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풍년 농사기원제와 마을길 걷기 행사 등이 열린다. 또한 수제맥주와 막걸리, 밀떡굽기 등 행사 체험 부스를 만들어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걷기 축제



스님께서는 달마고도를 만든 배경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달마산에 달마고도를 만들고자 일을 추진하셨던 분이 바로 금강스님이셨으니 말이다. 큰 바위가 쌓여있는 너덜지대가 스무 곳이나 되는 달마산이지만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호미와 곡괭이, 낫 그리고 지게와

손수레 등을 이용해 오롯이 사람의 손길로 길을 깔고 닦아 만들었다. 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흙하고 돌로만 길을 냈다. 그 때문에 공사기간은 예상보다 더 길었다. 장비를 이용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지만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님의 의도였다. 기존 옛길 9km에 이번에 새로 낸 9km를 합쳐 총 18km로 이루어진 달마고도가 완성되었다.

스님께서는 달마고도가 1270년 전부터 있었던 길이라 말씀하셨다. 인도에서 온 불상과 경전을 싣고 온 길, 대웅전 기둥으로 사용된 420년 된 나무를 보길도에서 가져온 길, 땅끝마을 사람들이 월송시장을 다니던 길, 정월 초하루 새벽 차례상을 차려놓고 미황사에 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던 사람들의 길, 고려시대에 있던 12개의 암자를 스님들이 왕래하던 길이라 하셨다.

산과 바다가 둘러싼 미황사 주변 12개의 마을이 미황사를 중심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 길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우수영 관광지



달마고도를 걷고 난 뒤에는 우수영 관광지로 향했다.

이곳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량대첩의 격전지인 울돌묵이기도 하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단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다. 울돌묵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이를 이용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적절한 것이었다. 우수영 관광지에는 명량대전을 기리는 내용의 전시물이 진열되어 있다. 중간중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있어 관람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조선군의 판옥선과 일본 수군의 세키부네 전선의 노를 젓는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흥미롭다. 직접 노를 저어보며 두 배의 차이를 몸으로 직접 느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의료진 소개

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성 민

전문진료분야

소아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어지럼증, 실신, 발달지연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Clinical fellowship, MCG epilepsy center, Medical college of Georgia, GA, USA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부장
• 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장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원장
• 現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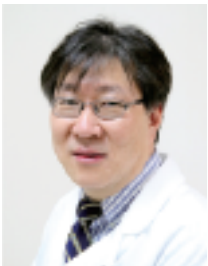
• Benign Acute Childhood Myositis (BACM)으로 진단된 환아에서 임상양상, 혈액검사에 대한 고찰, Journal of Korean Child Neurology Society, 2018
• A compound heterozygous mutation in the FMO3.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2017 외 다수

[학회발표]

• A case of pheochromocytoma presenting as headache and seizure. 32nd International Epilepsy Congress 2017, Barcelona
• Successful Treatment of Acute Cerebellitis with IV immunoglobulin in Pediatric Case. 14th International Child Neurology Congress 2016, Amsterdam 외 다수

[주요활동]

• 미국간질학회 회원(2005~2008) • 現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 現 대한뇌전증학회 상임위원 • 現 소아신경학회 운영위원 등



김 희 섭

전문진료분야

미숙아, 신생아 (미숙아클리닉)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전공의
• 서울대학병원 전임의(신생아분야)
• 미국국립보건원 교환연구원

[논문]

• 마이크로어레이로 분석한 곰팡이 감염 단핵구의 유전자 발현
• 한국에서 유행한 아데노바이러스 7형 단백질 다양성
• 항원성의 면역성을 유지하면서 B형간바이러스의 preS부위의 단백질 결합장소의 선택적 파괴
• 쥐의 혼합단핵구의 피부동종이식에서 indoleamine 2,3-dioxygenase 역할에 대한 연구 외 다수

[학회발표]

•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ections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 (2004) Travel Award
• 1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ections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 (2006) Best Abstract Award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주산의학회 법제이사 등



이 정 하

전문진료분야

소아의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질환, 소아 부정맥, 소아심장 질환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소아심장분과)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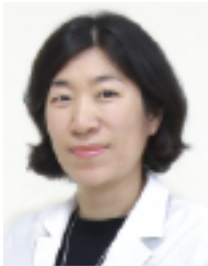
• 가와사키병에서 혈청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의 유용성. Dongguk Journal of Med 2016
• 소아의 결체조직질환에 동반되는 심혈관 질환. Dongguk Journal of Med 2014
• 유증상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의 진단 및 치료전략. Korean J Perinatol 2013
• H9c2 심근세포에서 doxorubicin에 의해 유발된 세포자멸사에 대한 clustrin의 보호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외 다수

[학회발표]

• Protective effect of clusterin from doxorubicin induced apoptosis in H9C2 cardiomyocytes. ESC congress rome 2016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 대한소아심장학회 정회원
• 한국심초음파학회 편집 심사위원 등



강 은 경

전문진료분야

알레르기, 호흡기, 중환자관리, 천식·알레르기클리닉, 수면질환

경력

•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소아 중환자실)
• 미국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 Sleep Center 연수 (2016.9~2017.8)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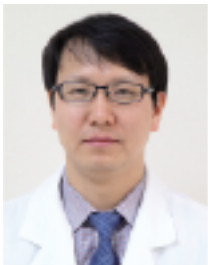
• Adherence to Positive Airway Pressure for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2019 (주저자)
• 단일 병원에서 2013 ~ 2015년에 유행한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의 임상 양상 및 치료반응의 차이. 소아감염 2017 (교신저자)
• Ileal perforation with norovirus gastroenteritis in a 3-month-old infant.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2017 (교신저자) 외 다수

[학회발표]

• A comparison of adherence to positive airway pressure between developmental disable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Americal Thoracic Society 2018, San Diego 외 다수

[주요활동]

•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 등



김 도 현

전문진료분야

신생아, 미숙아, 각종 감염 및 호흡기 질환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 (소아과학)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학 전임의
•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Comer Children's Hospital 연수 (Neonatal epidemiology)
• 現 소아청소년과 과장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

[논문]

• 미국 내 다양한 인종 간 적정 출생 체중과 만삭아 사망 위험도의 차이
• 신생아 수혈
• 전자간증 산모의 미숙아에서 기관지폐 형성이상의 발생과 제대혈 soluble endoglin 증가의 연관성
•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내 아시아 인종 부모로부터 태어난 출생아 연구
• 한국, 일본, 미국의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에 대한 출생 체중 분포와 출생 체중 특이 사망률의 효과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소아과학회 논문심사위원
• 대한신생아학회 학술위원/수련교육위원/논문심사위원
• 대한주산의학회 간행위원/법제심사위원
• 대한신생아학회 서울경인지회 학술위원
• 신생아심폐소생술(NRP) instructor 등



김 지 현

전문진료분야

소아내분비, 갑상선질환, 소아당뇨병, 성장지연, 성조숙증

경력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전공의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전임의(소아 내분비)

[논문]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별에 따른 한국인 만삭 출생아의 키, 2019
• 한국 소아청소년에서 ketosis prone 당뇨병 2례, 2019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근거한 한국인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의 지질 검사 결과의 연관성, 2019
• 조절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아에서 발생한 반복되는 체장염, 2018
• 급성모세기관지염의 원인 바이러스에 따른 중증도 차이, 2018
• Benign acute childhood myositis로 진단된 환아에서 임상양상, 혈액검사에 대한 고찰, 2018
• 단일 병원에서 2013~2015년에 유행한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의 임상 양상 및 치료반응의 차이, 2017
• 한국인에서 생선염새증후군 환자의 첫 보고, 2017 외 다수

[학회발표]

• Idiopathic hypopituitarism in children and adolescence 대한소아과학회 2008 외 다수



서 유 리

전문진료분야

소아 감염 질환, 1차성 면역 결핍 질환

경력

• 충남대학교 의학과 졸업
• 울산대학교 의학과 석사
•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 의사

[논문]

• Euri SEO, Jisun YOON, Sungsu JUNG, Jina LEE, Beom Hee LEE, Jinho YU (2019 02). Phenotypes of atopic dermatitis identified by cluster analysi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Dermatology 2019;46:117 - 123 (군집분석을 이용한 초기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표현형 분류) 외 다수

[학회발표]

• DOCK8 immunodeficiency syndrome initially presented as SLE in 16 month old boy. Clinical immunology society 2018 Annual Meeting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소아과학회
• 대한소아감염학회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28 ● 29

의료진 소개

2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최 성 민

전문진료분야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질환, 신생아, 미숙아

경력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및 박사(소아과학전공)
- 경북대학교병원전공의
- Postdoctoral fellowship. John Buhler Research Centre in Children Hospital, University of Manitoba, CA. (Allergy and Immunology)

[논문]

- Sinusitis and its relationship to allergic rhinitis and asthma in children, Dongguk Journal of Med. 2003
- Clinical study for Nosocomial Infection of Rotavirus in Preterm and Full-term Neonates. Korean J Pediatr. 1998
- Effect of CpG Oligodeoxynucleotides on airways of mice with established airways inflammation. Korean J Pediatr. 2002
- CpG DNA for treatment of allergic diseases. Korean J Pediatr. 2005
- RSV outbreak at a single postpartum care center. Korean J Perianto. 2016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 미국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학회(AAAAI) 등



김 두 권

전문진료분야
영유아 발달 장애, 언어장애, 소아두통, 뇌전증, 열성경련, 뇌성마비, 뇌감염, 근육질환, 뇌신경 클리닉

경력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부산백병원 소아과 전공의 수료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교수
- 미국 텍사스주 베일러 의대 소아신경과 교환교수

[논문]

- Benign Childhood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s : to treat not to treat. Journal of Epilepsy Research
- Potential Risk Neuropsychological Deficits from Subclinical Epileptiform Discharges with Benign Childhood Epilepsy. Journal of Epilepsy Research 외 다수

[학회발표]

- A Case of Alexander Disease Accompanied Infantile Spasms Diagnosed by DNA Analysi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Long-term Up-regulation of nNOS Expression of Following Recurrent Early-Life Seizure in Rats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소아신경학회 이사
- 대한소아신경학회 대구경북 지회장
- 대한뇌전증학회 운영위원 등



이 동 석

전문진료분야
소아심장학(선천성 심질환, 부정맥, 가와사키병), 내분비학(저신장, 성조숙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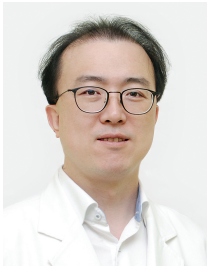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주임교수
-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소아청소년학과 과장
- 前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병원장
- 現 의과대학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논문]

- Protective Effect of Right Ventricular Mitochondrial Damage by Cyclosporine A in Monocrotaline-induced Pulmonary Hypertension. KOREAN CIRCULATION JOURNAL 2018
- Clinical Study of Prevalence of Antibiotic Resistance of Escherichia coli in Urinary Tract Infection in Children: A 9-year Retrospective, Single Center Experience Childhood Kidney Diseases. 대한소아신장학회 2017
- 혈청 나트륨 농도가 열성 경련의 발생 및 재발에 미치는 영향. 대한소아신장학회지 2016
- 경북 단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집단 감염 PERINATOLOGY 대한주산의학회 2016 외 다수

[주요활동]

- 경북의사회 학술이사, 부회장
-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조 승 만

전문진료분야
소아 소화기 및 영양, 신생아학

경력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소화기영양학 전임의/임상교수

[논문]

- Characteristics and Incidence Trends for Pediatric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Daegu-Kyungpook Province in Korea: a Multi-Center Study. J Korean Med Sci. 2018 Apr 12;33(18):e132 Hong SJ, Cho SM, Choe BH, Jang HJ, Choi KH, Kang B, Kim JE, Hwang JH.
- Ann Transl Med. 2016 Sep; 4(18): 336. Treatment strategies according to genotype for chronic hepatitis B in children Seung Man Cho and Byung-Ho Choe
- Early Detection of Kawasaki Disease in Infants. Korean Circ J. 2015 Nov;45(6):510-5. Kang JH, Hong SJ, Seo IA, Kwak MH, Cho SM, Kim DK, Choi SM, Lee DS.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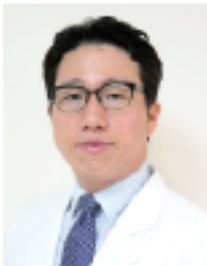
[학회발표]

-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2011) in denver, USA, best research award
-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10 등

의료진 소개

3

동국대학교한방병원



민 상 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분야
허약아, 성장장애, 성조숙, 학습장애, 소아호흡기질환(감기, 천식, 비염), 소아소화기질환(복통, 변비, 설사), 소아 알레르기, 두통, 안면마비

경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졸업(박사학위 취득)
- 소아과 전문의
-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소아과장
-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부회장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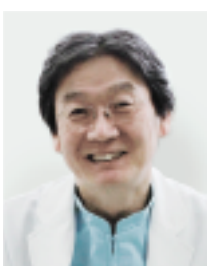
- Therapeutic Effects of Fermented Flax Seed Oil on NC/Nga Mice with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7
-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107 외 다수

[학회발표]

- World Congress On Medical Acupuncture(2016) – A Comparative Study on Heat Trasnfer Characteristics in Tissue Model with Application of Heat transfer type of therapeutic modalities 외 다수

[주요활동]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2015~19)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편집위원
-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부회장 및 고시이사 등



김 장 현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분야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비염, 천식, 아토피), 소화기 질환(식욕부진, 복통), 성장 부진, 야뇨증, 허약아

경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경희의료원 일반/전문 전공의 과정 수료
- 前 동국대학교 분당 및 경주 한방병원 병원장 역임
- 現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논문]

- Review of Clinical Research for Herbal Medicine Treatment on Rhinosinusitis.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8.
- Effects of Four Oriental Medicines on Secretion and Gene Expression of Mucin in Airway Epithelial Cells.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7.
- Pharmacopuncture for asthma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uropean journal of interative medicine. 2017
- Clinical effectiveness of the Sanfu herbal patch at acupoints for respiratory disease including otitis media i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interative medicine. 외 다수

[주요활동]

-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명예회장
- 대한한의학회 명예회장
- 대한한방병원협회 특임부회장 등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제19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이·취임식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4월 8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윤성이 총장 등 1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며 축하했다. 조성민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호 전 의료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더욱더 젊어진 병원과 학교가 마음껏 능력과 뜻을 펼쳐나갈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이해원 병원장 취임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지난 4월 4일 제10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성민 의료원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제10대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으며, 병원 발전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해원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배려와 소통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3대 불사 재원마련 선포식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지난 4월 17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된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에 참여했다. '백만원력불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강조해온 종단 정책으로, 인도부다가야 한국사찰 3군 본부 건립,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승려 요양병원 건립 등 3대 불사건립을 목표로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윤성이 총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 등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각급 기관장이 동참했다. 참여 방법은 불교계 공익법인(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CMS와 자동이체, ARS 저금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며, 한 계좌에 매월 3000원으로 기부액이 정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임기관장 일행은 취임인사를 위해 지난 4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조성민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이해원 병원장, 권범선 기획처장이 참석했으며, 불교종립대학병원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근 진행된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은 종단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중 요양병원 건립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많은 스님에게 의료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기관장 취임 고불식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3월 12일 대강당에서 2019 동국대학교의료원 기관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개식사, 삼귀의·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육법 공양에 이어 신임 조성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고불문 봉독 등이 진행됐다. 이날 고불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 각 기관장 등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보직자 2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전에 고(告)하며 원만한 회향을 기원했다.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4월 1일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평가 결과 양 기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향후 4년 동안 인증획득 의료기관 자격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지정병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 개방형 실험실구축사업' 주관 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업과 연계해 공동연구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최대 3년간 10개 기업이 동시 활용 가능한 개방형 실험실 설비 및 운영, 기술, 제품 개발 지원 등 협력 연구추진을 위한 연간 8억원씩 최대 2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지난 4월 5일 제47회 보건의 날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오상우 교수는 그동안 한국인의 비만에 큰 관심을 갖고 비만과 암 발생 사망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업적을 세웠으며, 지역 주민건강 증진 및 국가 건강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또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비만 지도를 완성했으며, 비만예방의 날 제정 및 국내 복부비만 기준 설정,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 마련 등 국가 보건 사후관리 제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2019년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유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이번 사업은 한의약의 다양한 특화진료 프로그램 발굴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것으로, 한방 병·의원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한의약의 인지도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의

·한 협진 난임 케어 프로그램을 주제로 최근 한방 난임 치료와 관련해 다양한 약재 특허를 보유한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중심으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방 난임을 소개할 예정이다.

불교 신도 암태식 불자, 병원 발전을 위해 1억 원 쾌척

지난 3월 12일 불교 신도 암태식 불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기부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식은 동국대학교의료원 기관장 임용식 초대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스님을 비롯해 조성민 의료원장, 분당한방병원장, 경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암태식 불자는 이날 기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자비 나눔을 실천하게 됐으며, 불교종립병원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림사 도일스님, 전공의 복지를 위한 기금 전달

부천 소재 사찰 소림사 도일스님이 지난 4월 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쾌척했다. 기부금을 전달한 도일스님은 "은사이신 일원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 구발전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의 뜻을 밝히셨다."며, "특별히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해 기부하게 됐다. 스님의 숭고한 뜻이 전공의들을 통해 병원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신축건물 건립 착공식 거행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3월 13일 인공신장실 앞 신축건물 건립현장에서 경주병원장, 경주한 방병원장 및 전임병원장, 주요보직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신축건물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축건물은 한의원 이전, 외래 진료과, 편의 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2,187㎡ 규모로 2020년 2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나득영 병원장은 “이번 행사는 동국대학교병원 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첫 발걸음과 같다. 2020년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외래 진료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민들에게 믿고 찾는 동국대학교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24시간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 운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경주시의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설치 및 소아전문 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소아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료인 12명을 채용하여 경주시 24시간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환자는 성인과 다른 의학적 특성으로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진료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경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응급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폐렴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종합점수 99.6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정맥내) 치료를 실시한 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99개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79.1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적정성 평가는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금연교육 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전체 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환자 및 보호자 위한 휴게공간 새단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방문안객들의 쉼터 공간인 7층 휴게실을 새단장했다. 기존 소아병동이 있는 5층 휴게실은 파스텔 톤의 컬러풀한 밝은 이미지로 꾸며졌다면 7층 휴게실은 고급스럽고 중후한 분위기의 휴게실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나득영 병원장은 “5층 휴게공간 리모델링에 이어 7층의 휴게공간을 새단장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6층의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등 고객중심가치가 더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믿고 찾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과 이승우 교수, 경상북도 의사회 학술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과 이승우교수는 3월 23일 제68차 경상북도 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학술상은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를 평가하여 시상한다. 안과 이승우교수는 대한안과학회, 한국망막학회, 한국포도막학회, 미국시과학회, 미국백내장굴절학회, 유럽유리체망막학회 등 다양한 학회활동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 서포터즈 발대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3월 13일 생명사랑위기대응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 공공기관 정신보건 담당자, 협업기관 담당자, 서포터즈 신청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 서포터즈는 정신건강의학적 지지와 다방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불기2563년 사암총연합회 봉축법요식 및 점등식 참여

지난 4월 22일 성남시청 및 성남불교 사암총연합회가 주최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박성식 병원장 및 김근우 연우회 회장과 연우회 회원 30여명이 이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중생제도를 기원하는 탑돌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연우회 회원들은 봉축탑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가 아름고 힘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8학년 일반 및 전문의 수료식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난 2월 22일 ‘2018학년도 일반 및 전문 수련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박성식 병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전공의들 인턴들을 보며 흐뭇할 때가 참 많았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참의료를 행하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레시던트,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일반수련의 3명, 전문수련의 2명 등 수료자 5명에게 수료증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2019년 상반기 자체 소방교육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상반기로 진행되는 소방교육은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병원에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환자 대피 등 자유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박성식 병원장은 “병원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병원은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 필요하고 교육훈련을 통해유사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 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이동석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취임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이·취임식이 지난 3월 25일 경주의학관 종합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동국대학교 조성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나득영 경주병원장, 이홍우 경주시의사회장 등 의과대학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제17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으로 취임한 이동석 신입학장은 취임사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참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 정기회의 및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4월 22일 한의과대학 대학원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 정기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컨소시엄 운영위원 및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의 ‘진료수행평가 개발 절차 및 의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박원환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진료수행평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한의학 진료수행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식 및 진입식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3월 4일 입학식과 의학관 진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용욱 학장을 비롯해 학장단 및 기초교실 교수,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선서식, 입학허가 선언, 축사, 장학증서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신입생들의 입학 및 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실습 가운을 입혀주며 격려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자	기부액(원)	100만원 미만 기부자
엄태식	100,000,000	강기선 권희재 김솔아 김태영 묘전스님 박준형 손민표 오성민 이민우 이주현 정경철 조혜원 평일스님 강도림 김가영 김송희 김태은 무구스님 박지현 손정은 오성은 이병기 이준길 정길식 조해진 하정희 강동완 김갑성 김수익 김태호 문미길 박진경 손정화 오윤주 이상이 이지영 정미라 주성채 하현지 강병경 김강림 김수정 김필자 문병모 박진우 손주연 오은경 이상현 이지영 정미라 주은명 한국실명 강보라 김경섭 김순만 김하겸 민상연 박창훈 손주영 오의진 이선아 이지원 정미선 주주환 예방재단 강석진 김경옥 김순애 김한성 바라밀 박철용 손효정 오종현 이선희 이지는 정보경 지영한 한명희 강석진 김경호 김승호 김해인 간병인 손희진 오지윤 이소라 이지현 정석화 진경애 한미정 강순엽 김경희 김시연 김해정 소개소 박현숙 송동현 오진숙 이소영 이지호 정선희 진영숙 한송이 강연주 김광기 김영미 김현서 박 관 박현주 송재오 오치훈 이소영 이 진 정수스님 차욱련 한영희 강윤성 김국현 김영미 김현정 박대희 박현택 송해정 왕지혜 이수환 이진복 정승희 차윤기 한우식 강은경 김금희 김영미 김형관 박동우 박효민 신경민 우종필 이숙경 이진호 정승택 채기수 한윤희 강지영 김남희 김영복 김해경 박동진 박효진 신경수 유광옥 이소옥 이재원 정연직 채봉희 한윤희 경천에 김달용 김영순 김혜림 박명조 방선호 신동환 유묘상 이승욱 이한용 정운영 채석래 한은숙 어테크 김대봉 김영옥 김해미 박미순 방정아 신석재 유상일 이승주 이해원 정원기 철은스님 한정훈 계선스님 김덕례 김영진 김해정 박미형 배건호 신성준 유세정 이승철 이항년 정윤정 최경아 허 봉 계수스님 김덕희 김영진 김해진 박상은 배상만 신윤주 유소라 이애영 이항미 정은경 최동우 허순례 고기연 김도연 김영한 김호준 박서연 배서영 신은재 유은정 이연재 이현정 정이선 최동준 허은경 고기환 김도연 김용배 김훈석 박석원 배수현 신은정 유정임 이영실 이현정 정인원 최명렬 허희진 고문수 김도현 김용석 김희영 박선옥 배재윤 신은희 유정화 이영일 이형경 정재우 최문전 현미숙 고영성 김동완 김용숙 나경란 박성미 배주현 신현모 유주연 이영찬 이형열 정재현 최민식 현옥스님 고유삼 김동일 김유리 나들간병 배효상 신혜란 신윤형 이원호 이혜옥 정지유 최병균 최봉옥 고은미 김명숙 김율리 인 협 회 박성재 백용해 신희영 유지영 이운경 이호준 정지천 최병환 해철스님 곽경아 김무충 김은미 나득영 박성주 백유진 신희정 유창국 이원녕 이효숙 정한숙 최봉용 홍민재 곽범석 김문선 김은영 나 현 박성주 백윤정 심규용 유휘주 이원상 이효정 정형수 최상돈 홍민희 구남이 김문식 김은정 남기태 박세진 변재옥 심윤보 윤복연 이원호 이희경 정혜은 최상식 홍병진 구병수 김미경 김은주 남순미 박수연 보웬터크 안가혜 윤수임 이유나 인승순 정호근 최석예 홍성임 구복심 김미선 김은희 남유화 박수혁 부 부 안대승 윤재문 이윤석 인준용 정휘수 최수연 홍숙자 구수연 김미숙 김용중 남지형 박순자 자동차 안성희 윤혜진 이은경 임선희 조경애 최예지 홍승옥 구순점 김미숙 김이수 남현미 박순자 서경진 안숙자 윤홍식 이은미 임성우 조계종 최완우 홍은희 구자현 김미영 김임숙 남현숙 박신애 서미경 안영길 윤효영 이은자 임성희 사회복 최유안 홍이내 국종돈 김미진 김재은 남화연 박영근 서영문 안지은 이강현 이은주 임영택 조동삼 최운혁 홍정표 권경순 김미현 김정미 남희련 박영룡 서영진 안탄형 이경미 이자경 임윤정 조동삼 최윤호 홍주혜 권기혁 김민선 김정민 노미경 박왕임 서 준 안희덕 이경미 이재우 임종대 조민주 최은희 홍지혜 권기현 김민성 김정숙 노태훈 박용교 서준하 양경수 이경민 이재환 임춘화 조새미 최인주 홍호진 권도윤 김민호 김정형 도경원 박용수 서지은 양유리 이경애 이정백 자비나 조선미 최인주 황보수건 권동현 김방희 김정훈 도한호 박재경 서지혜 엄희경 이광규 이정우 뉘세상 조성민 최재규 최정민 황인봉 권두경 김삼기 김종갑 동국대 박재숙 서희주 여민영 이구술 이정하 장동기 조성원 최정민 황인봉 권범선 김상규 김주현 경주병원 박재희 석상원 여민혁 이귀숙 이정현 장순자 조성자 최정숙 최정희 황정희 권병철 김선경 김지예 동 국 박정아 성낙진 여자갑과 이규옥 이정화 장유민 조승호 최종기 황지유 권삼숙 김선희 김지원 의원원 박정아 소전기 디자인 이나현 이정훈 장인규 조용민 최준용 최진영 권성옥 김성걸 김지현 류대인 박정화 소은숙 여현스님 이동영 이정희 장충섭 조유미 최진영 최창익 권수민 김성권 김창기 류위선 박종임 소정자 여취경 이동욱 이재훈 장태영 조윤미 최창익 최해송 권오형 김성원 김창환 류윤희 박종현 소행연 엄윤정 이명종 이종득 장호근 조정숙 최해송 최해용 권윤경 김세민 김치선 모성은 박주현 손귀득 엄주홍 이문정 이종철 전진영 조현선 최해용 최희정 권일진 김세희 김태선 모종은 박 준 손기원 오미정 이미영 이주는 정경윤 조혜기 최희정 권태용 김소원 김태숙 묘담스님 박준재 손동태 오민구 이미희 이주현 정경은 조혜영 추경희

본 명단은 2019월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575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동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경스님	100,000,000	정진스님	50,000,000	청루스님	30,000,000	명성스님	10,000,000	화영스님	10,000,000
국민은행	75,000,000	김홍순	50,000,000	향적스님	20,000,000	태연스님	10,000,000	보원스님	10,000,000
진성스님	50,000,000	정목스님	50,000,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17,920,790	도원스님	10,000,000	민재스님	10,000,000
영진스님	50,000,000	현진스님	50,000,000	정념스님	15,000,000	돈관스님	10,000,000	자인스님	10,000,000
태안스님	50,000,000	조명순	30,000,000	보광스님	10,000,000	법용스님	10,000,000	우룡스님	10,000,000

2018. 1. 1 ~ 2018. 12. 31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기업/단체	☐ 기타 ()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575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5753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9 Summer | VOL. 19

기부자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한 '동' 글 극의품목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등록금등록금

문/기/미/호/관/후/동/우/세/우/세/극/의/제/금/품/목/기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치과는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며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합니다.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 TEL 031. 961. 5753 FAX 031. 961. 5759 e-mail hongb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발전기금 담당
▶ TEL 031. 961. 5753 FAX 031. 961. 5759 e-mail hongbo@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발전기금 담당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발전기금 담당
▶ TEL 031. 710. 3711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Dongguk for you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발행인 조성민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9년 6월 1일 (통권 19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